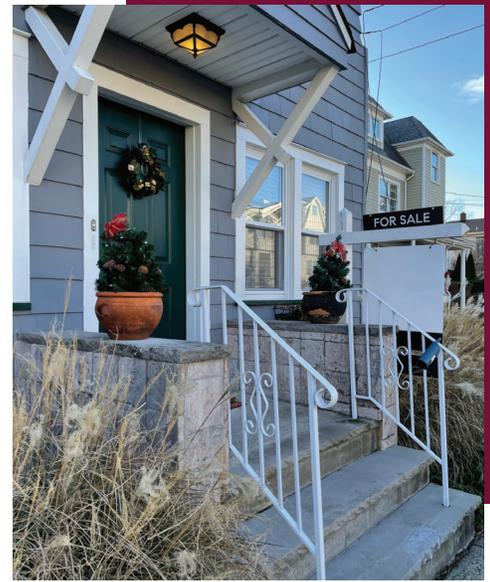


차압은 모라토리엄이 종료됨에 따라 상당한 증가를 보입니다.

ATTOM의 2021년 3분기 미국 압류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에 45,517개의 압류 신청이 있는 부동산이 있었는데, 이는 2분기보다 34%, 1년 전보다 68% 증가한 수치입니다. 9월에 압류 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은 19,609건으로 전월 대비 24%, 전년 동기 대비 102% 증가했습니다.



ATTOM 회사인 RealtyTrac의 부사장인 Rick Sharga는 "9월에 압류 활동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역사적으로 정상적인 수치보다 훨씬 낮습니다."라고 말했습니다. "9월 차압 조치는 2019년 9월 COVID-19 전염병 이전보다 거의 70% 낮았고 3분기 차압 활동은 그해 같은 분기보다 60% 낮았습니다. 향후 몇 개월 동안 유사한 차압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상적인 주택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올해를 마감할 것입니다."

대출 기관은 3분기에 25,209개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 절차를 시작했는데, 이는 2분기보다 32%, 1년 전보다 67% 증가한 수치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분기별 퍼센트 증가를 기록했습니다.

3분기에 가장 많은 압류 시작을 게시한 주에는 캘리포니아(3,434개)가 포함되었습니다. 텍사스(2,827); 플로리다(2,546); 뉴욕(1,363); 및 일리노이(1,362개의 압류 시작). 보고서에서 분석된 대도시 지역은 3분기에 가장 많은 압류 시작을 기록한 지역은 뉴욕(1,456); 시카고(1,122); 로스앤젤레스(1,102); 마이애미(992); 휴스턴(866).

3분기에 압류 시작이 감소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지역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(32% 감소); 오리건주 포틀랜드(26% 감소); Rochester, N.Y.(17% 하락); 캘리포니아 산호세(13% 하락); 코네티컷주 하트퍼드(6% 하락).

"지금까지 정부와 모기지 업계는 협력하여 놀라운 일을 해왔습니다."

압류 유예 및 모기지 유예 기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백만 건의 불필요한 압류를 방지합니다."라고 Sharga가 말했습니다. "하지만 앞으로 2개월 안에 수십만 명의 차용인이 관용을 종료할 예정이며 이러한 차용인의 더 높은 비율이 대출을 불이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"

3분기에 가장 높은 압류율을 보인 주는 네바다주였습니다(압류 신청이 있는 1,463개 주택 중 하나). 일리노이(1,465명 중 1명); 델라웨어(1,515명 중 1명); 뉴저지(1,667명 중 1명); 플로리다(1,743명 중 1명).

3분기에 압류율이 가장 높았던 분석된 대도시 지역에는 뉴저지주 애틀랜틱시티(709개 중 1개)가 포함되었습니다. 일리노이주 피오리아(754명 중 1명);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(923명 중 1명);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(936명 중 1명); 및 라스베가스(1,167분의 1).

3분기에 가장 많은 수의 압류를 완료한 주에는 Illinois(965 REO)가 포함되었습니다. 플로리다(564 REO); 펜실베이니아(480 REO); 미시간(401 REO); 및 뉴욕(370 REO).

3분기에 압류된 주택의 평균 압류 기간이 가장 긴 주는 하와이(2,070일)였습니다. 네바다(1,989일); 캔자스(1,901일); 뉴욕(1,659일); 및 워싱턴(1,611일). 평균 압류 기간이 가장 짧은 주는 몬태나(94일)였습니다. 와이오밍(102일); 미시시피(133일); 미주리주(213일); 및 버지니아(272일).